

선수 경기력 향상 방안 논의

도교육청, 종목단체 총감독 협의회

전국소년체전 상위 입상이 목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앞두고 전라북도 대표 선수단의 출전 계획과 경기력 향상 방안 등을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일 8층 회의실에서 종목단체 총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라북도 종목단체 전무이사, 사무국장 등 26명과, 전북체육회 전문체육과장이 참석해 전국체육대회 분야별 준비상황과 학생선수들의 안전 및 경기력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수년 간 육성종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를 종목단체와 전북체육회에 안내했다.

이어 따르면 실제 도교육청은 전국소년체육대회를 대비해 지난해부터 육성종목 장비 교체를 지원했고, 올해도 전략종목(메달유망·다메달·단체)에 특별훈련비 3억8,750만원, 메달유망종목 합동 강화훈련비 3,950여만 원, 대표선수 훈련비 4928.4만원 등을 지원했다.

또한 메달유망종목은 아니지만 육성종목 활성화를 위해 육성종목 운영학교 선수들의 경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일 8층 회의실에서 종목단체 총감독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력 향상을 위한 강화훈련비도 5월 초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선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종목단체들의 종목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정찬 관장은 “코로나9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선수들의 안전과 부상예방 및 생활지도를 무엇보다 신경써 주길 부탁한다.”

“면서”전라북도 대표 선수들이 전국소년체전에서 미움직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표선수 훈련비 등 경기력 향상과 학생선수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상북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36개종목에 초중학교 학생선수와 입원 1만 7,000여 명이 참가한다.

/정은성 기자



‘챔피언을 이겨라’ 자선 골프경기 지난 2일 고창군 고첨CC에서 열렸다

여자골프 레전드들, 고창에 모였다

WPGA ‘챔피언을 이겨라’ 자선 경기

한국여자골프 레전드가 총 출동한 자선골프경기가 고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지난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챔피언을 이겨라’ 자선 골프경기가 지난 2일 고창군 고첨CC에서 열렸다. 이번 골프경기는 연합뉴스, 정읍갤러리 카페 이오일 스페이는, 고창군체육회, 고첨CC가 후원했다.

경기는 KLPGA 챔피언을 지난 안시현, 김하늘, 허윤경, 김다나, 김지영, 배희경, 김현지, 김혜윤 프로와 일반인 신청자 8명(고창군 출전자 : 김양곤 골프회장, 박정민)이 친선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는 골프 이벤트 개최와 골프 영상제작, 선수 후원을 위해 설립된 WPGA 대표인 시현 프로가 주관해 진행하는 이벤트 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경기를 통해 얻어진 자발적 후원금은 골프 꿈나무육성 사업(고창북고 500만원, 정읍감곡초 500만원, 골프유소년유망주 200만원) 지원과 유기동물 지원(40만원) 사업 등 총 160만원이 쓰였다.

고창군체육회 오교만 회장은 “코로나9로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프로골프 챔피언들이 고창을 방문해 자선골프 경기를 열어 주셔서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청=김영식 기자

“후회 없이 좋은 경기 펼쳐 진안홍삼의 힘 보여줄 것”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최지호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 출전



진안군청 역도선수단 최지호 선수(20)가 세계 무대에 나선다.

최지호 선수는 6일 그리스 해라클리온에서 열리는 세계주니어역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최 선수는 지난 21년도 진안군청 역도선수단에 입단해 태고난 기량과 꾸준한 훈련으로 전국남자주니어역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하는 등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앞으로 기대되는 선수이기도 하다.

최지호 선수는 “첫 국제대회라 많이 떨리지만, 후회 없이 좋은 경기 펼쳐 전 세계에 진안홍삼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지호 선수 출전 경기는 5월 6일이 되는 자정 YouTube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IWF(International Weightlifting Federation)에서 시청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5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4월 태권도진흥재단 오옹환 이사장과 임직원, 자원사가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사이클 AG 국대 4명 선발 쾌거

LX, 박상홍 · 박건우 · 임재연 · 김유로 등

“목록히 비인기종목 육성에 투자한 결실”

대한민국 사이클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 LX공사)가 아시안케임 사이클 국가대표를 대거 배출했다.

LX공사는 지난 4일 제19회 항저우 아시안케임 남자 사이클 종강거리 국가대표 11명 중 LX 사이클 선수 4명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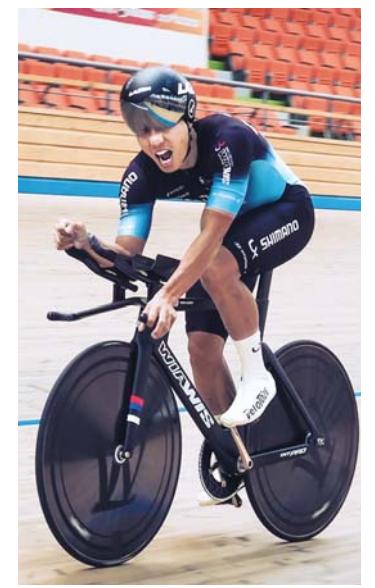
대한지전거연맹의 발표에 따르면 사이클 종강거리 종목인 도로·트랙사이클 국가대표에 LX 사이클 선수 박상홍, 박건우, 임재연, 김유로(한국국체육부대 / 9. 1. LX 공사 복직))가 포함됐다.

5명을 선발하는 도로사이클 국가대표에는 박상홍, 박건우 선수가, 6명을 선발하는 트랙사이클 국가대표에는 임재연, 김유로 선수가 선발되어 남자 도로·트랙 국가대표의 약 절반에 가까운 수를 차지했다.

LX 사이클선수단 주장 박상홍 선수는 “국가대표팀에 LX공사 동료들이 함께 선발되어 기쁘다”며 “우수한 국가대표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과 협력을 통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이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LX 사이클선수단 단장을 겸임하고 있는 오애리 경영지원본부장은 “LX공사 선수들이 대거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어 영광이다”

며 “목록히 비인기종목 육성에 투자한 결



임재연

실이라 더욱 뜻깊다 LX공사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항저우 아시안케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제16회 장애인 가요제 성공 개최를 응원합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월간 의회



논개생가지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